

둘째 주; 중생의 확신

기본 신학 둘째 주 중생의 확신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 요한 복음 3:1-8

요한복음 3 : 1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요한복음 3 :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3 : 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 : 4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요한복음 3 :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 :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 :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 :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오늘은 전시간에 이어 중생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에 읽은대로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정치 종교 재판소의 권위 있는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 경건하며 율법대로 살아가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길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를 볼 수 없다”

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깜짝 놀라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삽나이까? 더군다나 나의 어머니는 돌아 가셔서 땅에 묻히인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 “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집사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 선언에 여러분이 ‘나는 중생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는가?’ 하는 도전을 느끼면서 오늘 성경 공부에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중생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하고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중생은 성령께서 말씀을 도구로 하여 우리의 죽은 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Eternal Life)을 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I. 인간은 왜 거듭나야 하는가

1. 인간의 구성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spirit)과 혼(soul)과 육(body)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것을 데살전서 5:23 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spirit) 과 혼(soul)과 몸(body)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인간에게 영(spirit)이 있음을

로마서 8 : 16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6] The Spirit itself beareth witnes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the children
of God:

사람은 사람의 성령님을 통하여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고전 2:11-12).

혼(soul)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고, 육을 통하여는 외계와 접촉합니다.

2. 원죄로 영이 죽은 자가 되다

그런데 아담의 원죄의 전가로 모든 사람이 영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창 2:17 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과 이브는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어 불순종을 하게 됨으로, 영적 사망이 다가와 영이 죽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 나리라(요 5:25)**” 고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멀쩡하게 눈을 뜨고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 나리라”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 나리라(요 5:25)

멀쩡히 살아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왜 죽은 자라고 말합니까?

중생치 못한 자들을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원죄로 인해 영이 죽은 자들,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죽은 영이 살아 일어 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생입니다.

3. 영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요 4:24)” .

**요한복음 4 :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의 결과로 영이 죽어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의 전가로 중생치 못한 인간의 영은 죽어 있어, 중생치 못한 인간의 혼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전 2:14 에 이르길 “**육에 속한 사람은(중생치 못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고 했습니다. 세상 공부를 많이 하여 학박사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선 중생한 촌노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이 살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 줄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 :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 :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 :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이 들어 오시고, 죽은 영이 살아 일어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II. 사람이 중생을 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원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거듭나기 위해선 첫째로 죄의
형벌인 사망을 누가 대신 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둘째는 마귀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결박을 부활로서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로서 사망의 결박을 푸시려고 죄없는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1.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요한복음 19 :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고 하신 후 돌아 가셨습니다.

우리 말의 “다 이루었다”는 **tetelestai(complete, discharge (a debt))**로서 값을 다 지불하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는 것은, 아담 이후로 내려오는 모든 원죄의
형벌인 죽음을,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다 갚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다 지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는 의미입니다.

2 부활로서 사망의 결박을 풀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원죄에 대한 죄책(죄에 대한 책임)으로
사망이 전가되고, 한 사람도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후예는 아무도 사망의 결박을 풀고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없는 인간이 와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대신 죽으시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해야 합니다.

창세기 3:15 에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 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15¹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He)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He)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태어 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들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 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이런 자연적 출산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womb 을 빌려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것을 말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은 아무도 사망의 결박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원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는 말하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고 예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연적 인간적 아버지가 없습니다.

또 신약의 마태는 마태복음 1:20 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죄없이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죄의 결과로 다가온 사망이 그를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사망의 세력이 그를 지배할 수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골 2:15 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들어 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고 하였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렸다는 말은 disarm 으로 “무장을 해제했다” 는 뜻입니다. 마귀의 권세인 사망을 부활로 깨뜨려 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로서 마귀의 권세인 사망을 깨뜨려 버리시 마귀를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서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신 결과로 마귀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가진 우리를 더이상 사망으로 hold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소식이 완성되는 데는 아담 이후 4000 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¹ 히브리 원어 해석 구약 신학 by Walter Keiser p.53

예수님은 마귀의 무장인 사망을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 주십니다.
우리를 중생케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결박을 푸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딤후 1:10)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
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히 2:14-15)

이 공부를 하신 분은 꼭 공부를 하신

구원론시리즈 web-page 로 가셔서

공부를 하신 타이틀의

Follow 나 Like Button 을 눌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 Like button 을 누르지 않으셨으면 다음 공부로 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Eg. 만약 구원론시리즈를 공부하셨으면

인터넷 브라우저의 좌측 상단으로 가셔서



를 누르시면 구원론 web-page 로 돌아 갑니다.

거기에서 구원론 을 설명한 내용 하단에

Like Button 이 있습니다.

모든 타이틀마다 다 Like Button 이 있습니다.